
내 인생의 국어 - 그 쓰라림과 달콤함 -

임재춘 · 한국TC협회 명예 회장(TC: Technical Communication)

내 인생에서 쓰라린 국어

나는 학창 시절에 어학을 가장 싫어했다. 계산하는 것을 좋아해 수학과 과학은 재미가 있는데 국어는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영어도 못해 대학은 자연스럽게 이공계를 지원하였다. 기계를 전공하면서 골치 아픈 국어와 영어는 기분 좋게 결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싫은 것을 피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기술 고시에 합격(1973년)하고,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동료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원자력 안전 자문관이었다. 영어가 급해 카세트 교재를 죽어라고 6개월 들었더니 귀가 열렸다. 이로써 영어는 해결이 되었으나 국어 문제는 좀 더 뒤에 왔다. 사무관이나 과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내가 글을 잘못 써도 상사가 마지막에 고쳐 주지만 중앙 부처 국장쯤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문제의 글은 방사성 폐기물 부지 공고문이었다. 나는 공고 문안을 유명 작가에게 의뢰한 후 주요 일간지 1면들을 잡아 두었다. 신문에 실기

로 한 날은 다가오는데 원고는 더디기만 했고 독촉 끝에 받아 본 문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시간이 없었던 나는 밤새워 공고 문안을 다시 만들어 새벽에 장관에게 보냈다. 문장에 주어도 없고 비문투성이인 공고 문안을 받아 본 언론계 출신 장관은 크게 화를 내었고, 그날 오전에 나는 원자력국장의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날 이후 나는 글쓰기에 관심을 가졌다. 대학 작문 교재, 논술 길잡이, 문장론, 보고서 작성법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 보았으나 결과는 불만스러웠다. 내용이 지루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목차만 봐도 질렸다. 그러다 실용 글쓰기가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용적인 글은 약도 그리듯이

글은 문학적 글과 실용적인 글이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문학적인 글만을 배웠다. 그러니 글쓰기를 할 때 글은 아름다워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학적인 글은 잘 그린 그림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마치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 교육은 마냥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고 3다(多)를 가르친다. 문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데에 있다. 이러니 글쓰기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글쓰기에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공계 출신 기술자나 과학자에게는 더하다.

그러나 그림 대신 약도를 그린다면 약도는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 실용적인 글쓰기는 약도 그리듯이 하면 된다. 사무적으로 쓰는 글은 감정에 호소하여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요 사실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 글쓰기다.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 글을 쓸 때에는 약도 그리듯이 하니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글의 전체적인 틀과 형식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한글 문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한글 문장은 주어와 생략할 수 있고, 또 핵심 정보를 전하는 서술어가 가장 뒤에 제시된다.

주어와 단문만 제대로 써도 좋은 문장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생략해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글을 쓸 때 주어를 생략하면, 읽는 사람이 앞뒤 문맥이나 상황을 일일이 고려해야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말은 영어와는 달리 주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 없는 문장이 많다. 그러나 주어가 없으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 읽는 사람이 헷갈리게 된다. 쉬운 내용이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아무렇게나 쓰인 글로도 이해가 쉬우나, 복잡하거나 새로운 내용은 주어가 있어야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의미가 모호해져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다 보면 글자의 양이 많아져서 긴 문장이 된다.

문장에 주어가 있어도 사물이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문장은 수동태가 되어 ‘누가’ 한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또 주어가 있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지 않으면 주어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도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문장에 주어 넣기를 권장한다. 문학적인 글은 주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읽기에 곁끄럽겠지만 실용적인 글은 유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글을 쓸 때 주어만 제대로 찾아 써도 글쓰기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문장에서 주

어 찾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어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보어와 헷갈려 한다. 참고로 이 글 말미에 간단한 문장 6개를 시험한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기 바란다.

우리글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서술어가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자’, ‘먹자’, ‘놀자’, ‘그만두자’ 등 서술어만 써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다. 이런 서술어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말은 끝나 봐야 한다. 이런 폐단을 최대한 줄이는 길은 서술어가 빨리 등장하도록 단문을 쓰는 것이다. 중요한 정보일수록 단문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다.

내 인생의 달콤한 국어

“글의 형태를 약도 그리듯이 하면서, 주어를 챙기고 단문을 쓰자.”를 책으로 엮어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2003, 마이넨)를 내었다. 이 책은 큰 호응을 얻어 나를 단번에 유명 강사로 만들었다.

국어를 제대로 쓰다 보니 영어 작문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사실 영어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겪는 골칫덩어리다. 토익 점수를 죽어라 따라가도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말하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아도 앞으로는 쓰기가 필수라고 한다. 쓰기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영어는 더 어렵다. 그래서 영어 쓰기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런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는 도구가 구글(Google)이다. 구글의 번역과 검색 기능을 동원하면 한글로 문장을 쓰되 주어를 넣고 단문으로 하기만 하면 영작이 되고, 원어민 수준의 용법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정리해서 《한국의 이공계는 영어쓰기가 두렵다》(2011, 북코리아)까지 출판했다. 국어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별첨: 우리 문장 실력 검사

예문(O/X로 표시하기)

다음 예문을 보고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골라 보자.

예제1: 토끼는 꼬리가 짧다.

예제2: 원자력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의 배출이 없다.

예제3: 나는 그가 좋다.

예제4: 나는 영화가 보고 싶다.

예제5: 한국은 울산이 살기가 제일 좋다.

예제6: 나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

몇 개가 맞는가? 답은 전부 맞다. 한 개 맞추었다고 자탄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과 직장인의 평균 실력은 하나 정도이다.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를 넣는 연습은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키는 것인데 대학생과 직장인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영어는 문장에 5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국어 문장에 몇 형식이 있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글은 3형식이 있다.¹⁾ 3분이면 배울 수 있다. 다음은 우리글의 기본 형식이다.

우리글의 기본 형식

1형식: 나는 학생이다.

바람이 분다.

하늘은 푸르다. (주어+서술어)

2형식: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주어+목적어+서술어)

3형식: 나는 어른이 된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1)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3형식에서 12형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는 철수를 양자로 삼았다. (주어+보어+서술어)

1, 2형식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인데 문제는 3형식이다. '어른이', '선생님이'는 외형상으로는 주어로 보이나 실제로는 보어다. 주어를 보완해 주는 주격 보어다. '되다'와 '아니다'는 완전 보어로 보고 '하고 싶다'와 '좋다' 등의 느낌 동사는 불완전 보어로 본다. 보어는 목적격으로도 쓰이는데 '양자로'는 '철수'라는 목적어를 보완해 주는 목적격 보어이다.

'이 책은 재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책'은 주어이고 '재미가 있다'는 서술절이다. 여기서 '재미가'는 서술절에서 주어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보다 간편하게 이중 주어문으로 해석한다. 즉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보어도 이중 주어문으로 해석한다. '나는 어른이 된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에서 '어른이'와 '선생이'를 또 다른 주어로 본다.

다시 앞의 '우리 문장 실력 검사'로 돌아가자. 이제 이들 예제가 왜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제 1과 2는 '주어+서술절'의 형태이다. 이중 주어로도 해석된다. 예제 3과 4의 '그가'와 '영화가'가 느낌 동사를 대동하는 보어이다. 예제 5는 삼중 주어이다. 이중 주어가 있으면 삼중 주어도 있다. 예제 6에서 '기술은'은 조사가 '은'이라 외형상으로 주어로 보이나 '은'은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는 돈이 많다.'와 '그는 돈은 많다.'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국어를 정확하게 알고 쓰면 구글 자동 번역도 상당히 정확하게 된다. 다음은 구글 번역이 보여 주는 영작이다.

구글 자동 번역

1. Rabbits have short tails.
2. Nuclear power (that cause global warming), there is no emission of carbon dioxide.
3. I like him.
4. I would like to see the movie.
5. Ulsan, Korea has to live is best.
6. I have skills.